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
보도 일시	2023. 1. 5.(목) 11:00 < 1.6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1. 5.(목)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	책임자	과 장 안성호 (044-203-4090)
		담당자	사무관 박주형 (044-203-4069)

2022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동향

- 24개사(누적 126개사) 복귀,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계획(1.1조원) -

Ⅰ. 총 괄

□ '22년 국내복귀를 확인받은 기업은 24개社(전년比 △2개社)이며 투자계획 규모는 1조 1,089억원으로 최초로 1조원을 돌파

○ 24개社 복귀는 역대 두번째로 높은 양호한 실적이며,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된 '14년 이후로 누적 126개社 달성

< 최근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현황 >

구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14년 이후 누계
국내복귀기업(개社)	4	8	14	23	26	24	126개社

* 국내복귀기업 :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요건을 충족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받은 기업

○ 투자계획 규모(1조 1,089억원)는 전년 대비 43.6%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 달성

<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 규모 추이 (단위 : 억원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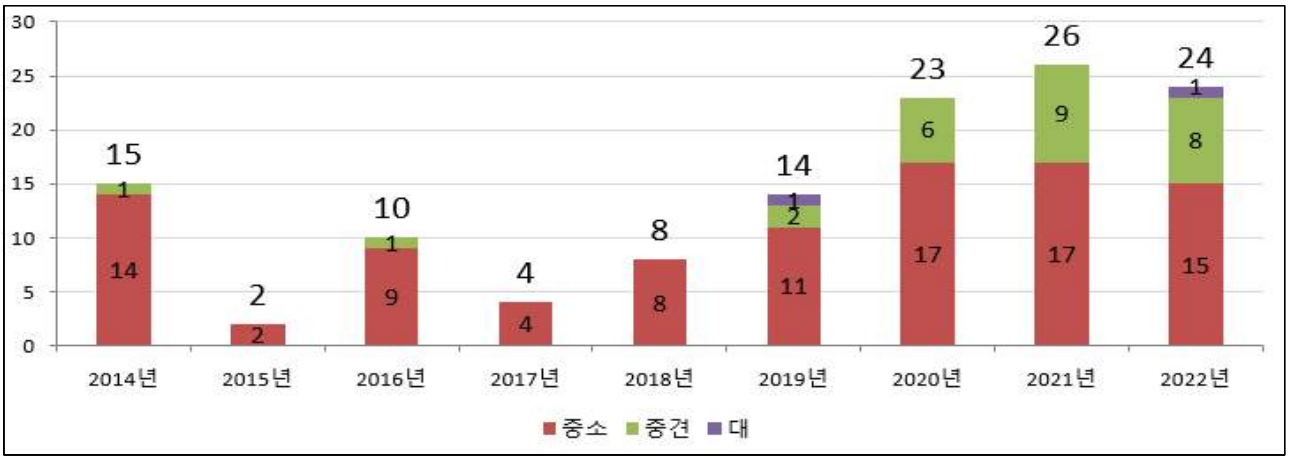


□ **중견·대기업 비중 증가, 공급망 관련 기업 중심의 복귀** 등 국내복귀기업의 질적수준 제고 지속

○ 국내복귀기업 중 **중견·대기업의 비중은 37.5%**(9개社, +2.9%p)**로 역대 최고 수준**

* 중견·대기업 비중 추이 : 9.4%('14~'19) → 26.1%('20) → 34.6%('21) → 37.5%('22)

< 국내복귀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추이 (단위 : 개社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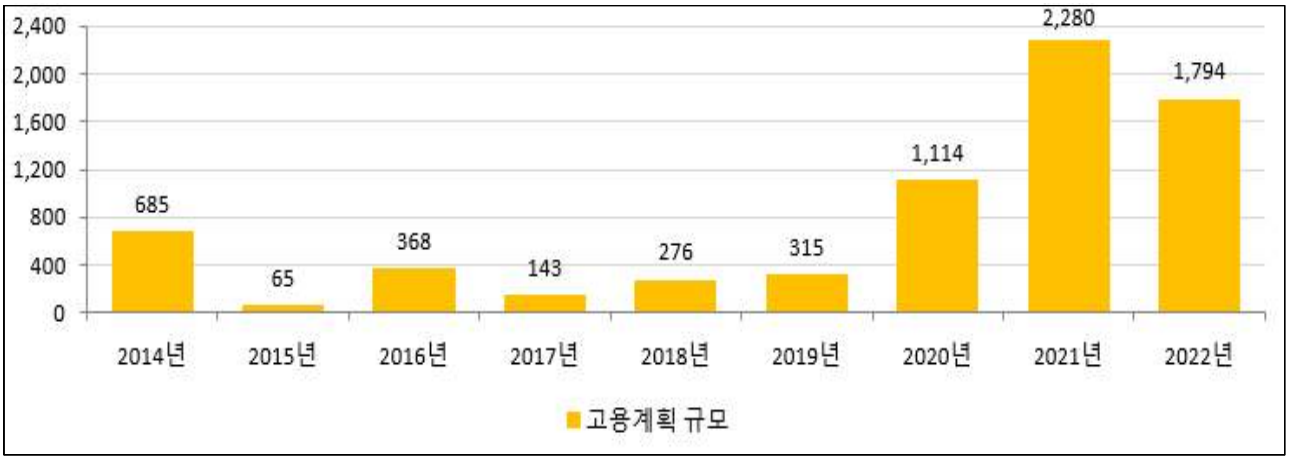
○ 반도체 및 모바일용 PCB(S社), 반도체용 화학제품(D社) 등 관련 법령에 따라 **첨단업종,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확인받은 6개社 복귀**

* 첨단·공급망 핵심 기업 복귀 추이 : 4개社('20) → 2개社('21) → 6개社('22)

□ 전기전자, 자동차, 화학 등 자본집약적 업종이 복귀기업의 주를 이루면서 **고용계획 규모는 1,794명**으로 **전년 대비 21.3% 감소**

* 자본집약적 업종 비중 추이 : 60.4%('14~'19) → 78.3%('20) → 69.2%('21) → 83.3%('22)

< 국내복귀기업 고용계획 규모 추이 (단위 : 명) >



II. 세부 분석

□ **(투자계획 규모)** 국내복귀기업들의 투자계획 규모는 총 1조 1,089.2억원이며, **대규모 투자 기업 수 및 평균 투자금액 모두 '21년 대비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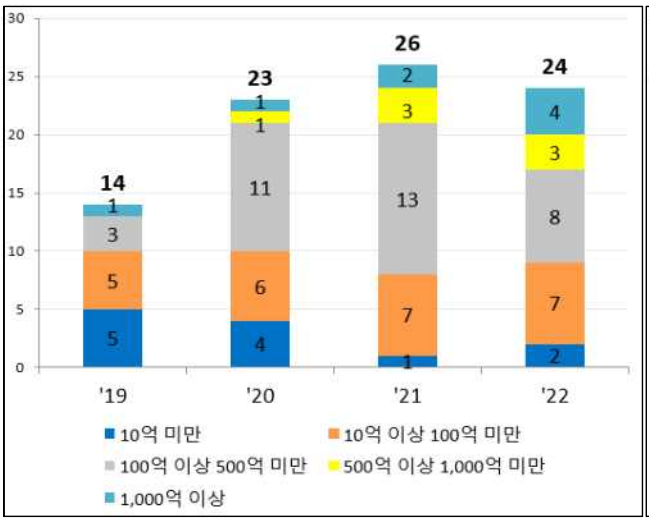
○ **(기업별 투자계획)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수는 7개社**(전년比 +2개社)이며 **비중은 29.2%로 '19년 이후 증가세 지속**

* 7.1%('19) → 8.7%('20) → 19.2%('21) → **29.2%('22, +10%p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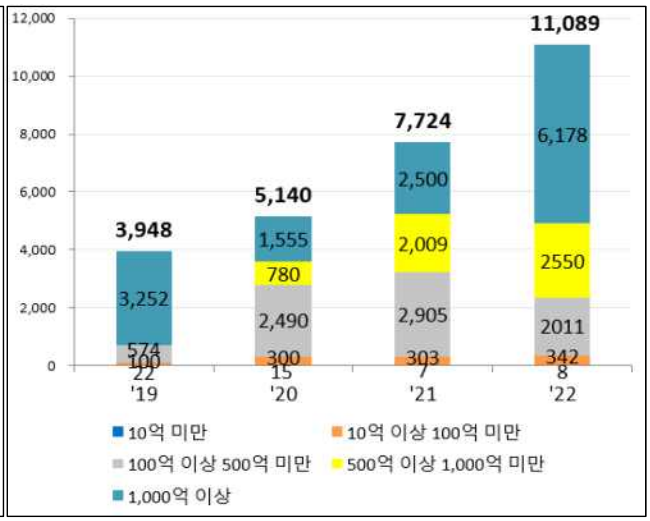
○ **(평균 투자계획) 기업당 평균 투자계획 금액 역시 462.1억원으로 전년 대비 55.5% 증가**

* 223.5억원('20) → 297.1억원('21, +32.9%) → **462.1억원('22, +55.5%)**

< 기업별 투자계획 규모 (단위 : 개社) >



< 투자계획 규모별 총투자 (단위 : 억원) >



□ **(고용계획 규모)** 총 고용계획 규모는 1,794명이며, **대규모 고용 기업은 증가**하였으나 **기업당 평균 고용계획은 감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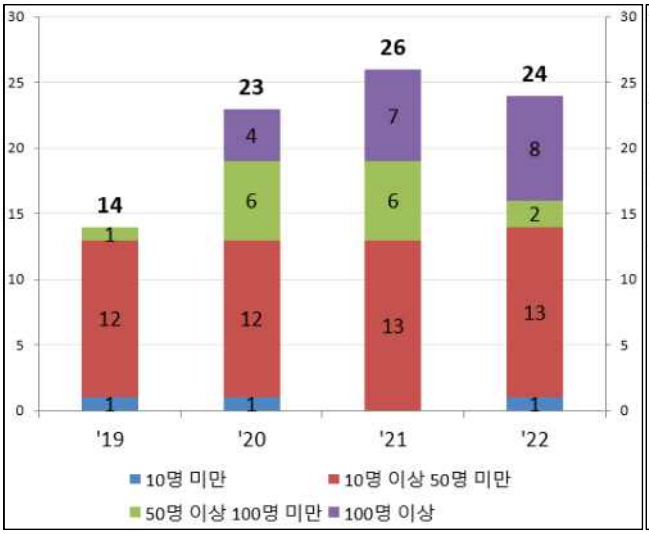
○ **(기업별 고용계획) 100명 이상 고용 기업 수는 8개社**(전년比 +1개社)이며 **비중은 33.3%로 '19년 이후 증가세 지속**

* 0%('19) → 17.4%('20) → 26.9%('21) → **33.3%('22, +6.4%p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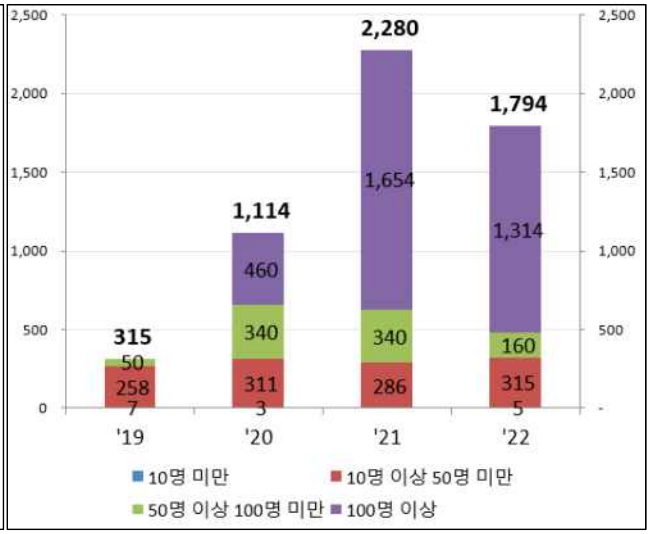
○ **(평균 고용계획) 기업당 평균 고용계획 규모는 74.8명으로 전년 대비 14.7% 감소**

* 48.4명('20) → 87.7명('21, +81.2%) → **74.8명('22, △14.7%)**

< 기업별 고용계획 규모 (단위 : 개社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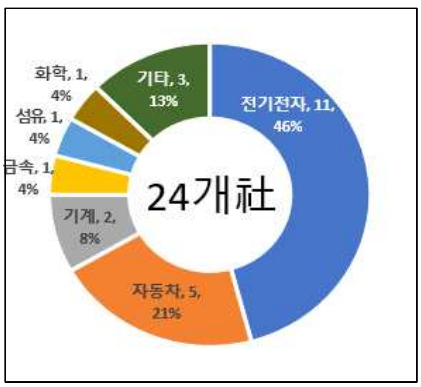


< 고용계획 규모별 총고용 (단위 : 명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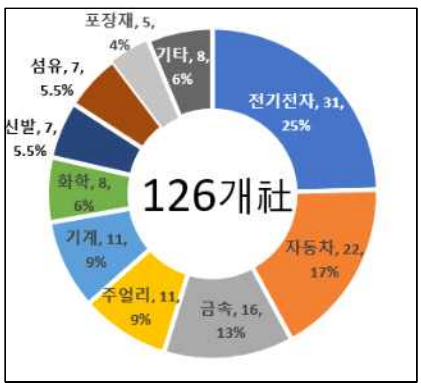
□ (업종) 전기전자(11개社), 자동차(5개社), 기계(2개社) 순으로 주력업종이 전체 복귀기업의 83.3%(20개社) 차지

< '22년 복귀기업 업종별 분포 >



* 단위 : 업종, 개社,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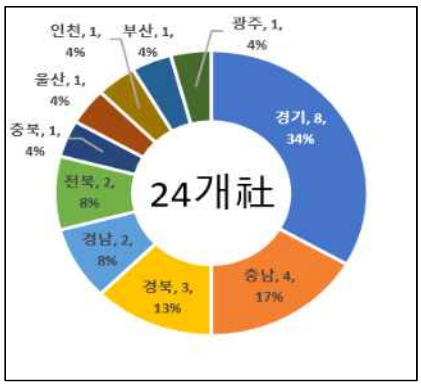
< '14 ~ '22년 복귀기업 업종별 분포 >



* 단위 : 업종, 개社,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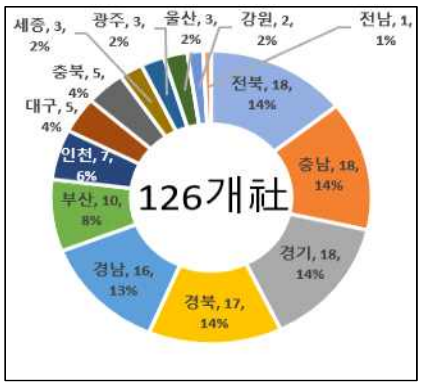
□ (복귀지역) 경기(8개社), 충남(4개社), 경북(3개社), 경남·전북(각 2개社) 순

< '22년 복귀기업 복귀지역별 분포 >



* 단위 : 지역, 개社,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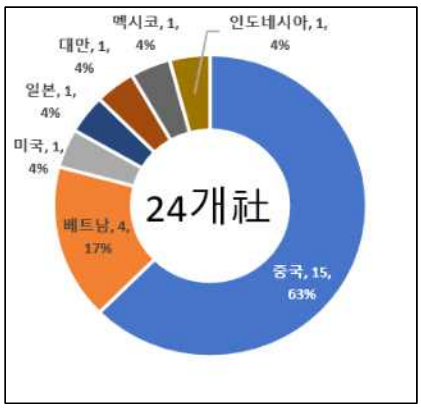
< '14 ~ '22년 복귀기업 복귀지역별 분포 >



* 단위 : 지역, 개社,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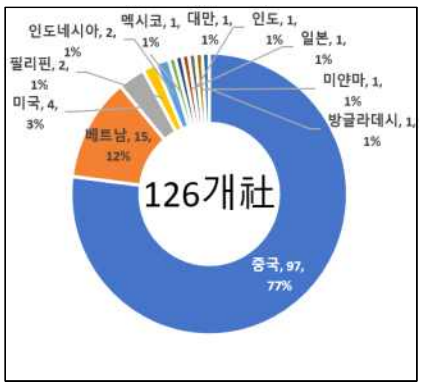
□ (복귀국가) 중국(15개社), 베트남(4개社) 순으로 중국·베트남으로부터의 복귀기업이 약 80% 차지

< '22년 복귀기업 복귀국가별 분포 >



* 단위 : 국가, 개社, 비중

< '14 ~ '22년 복귀기업 복귀국가별 분포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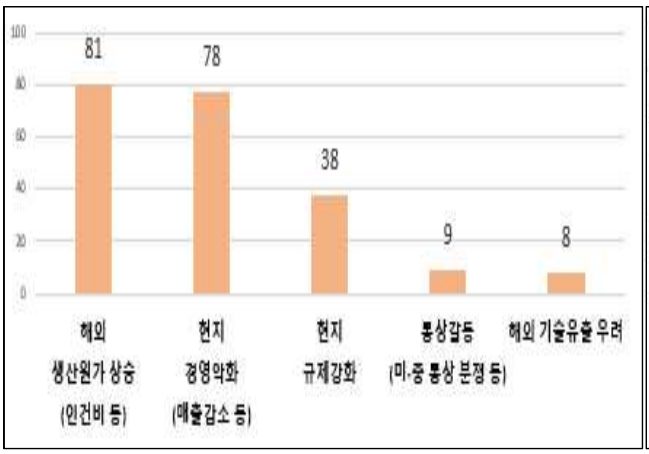
* 단위 : 국가, 개社, 비중

III. 평가 및 향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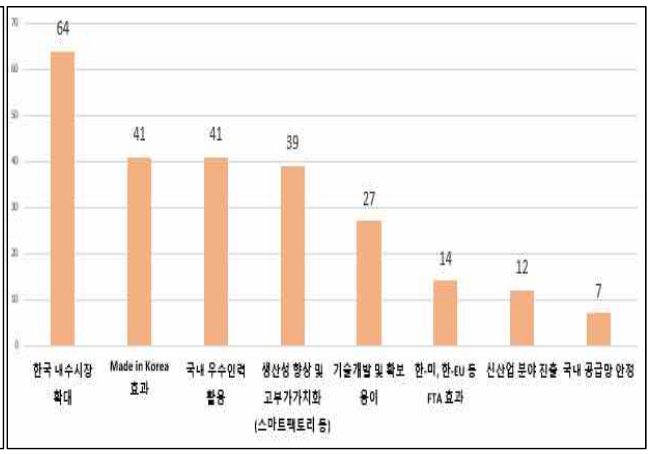
□ 전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, 고금리 등 **어려운 대내외 투자환경 속에서 정부의 지원제도 강화 등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**한 것으로 평가

○ **(환경 요인)** 국내복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, **해외 투자환경 악화, 국내 내수시장 확대 등을 국내복귀의 주요 요인으로 응답**

<해외시장 부정요인>



<국내시장 긍정요인>



* 복수응답, 복귀기업 확인시 개별조사, Kotra

○ **(정책적 지원)** 첨단·공급망 핵심업종의 해외사업장 축소의무 면제, **공장 신·증축 없는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투자 국내복귀 인정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지속**

□ **2023년에도** 경제 활성화, 공급망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의 국내복귀를 확대하기 위한 **국내외 유치활동과 기업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**

○ Kotra 등 유관기관·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**대규모 설명회, 1:1 상담 등을 개최하여 최근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**으로 대내외 홍보 및 IR 추진

○ **투자보조금('23년 570억원) 등 인센티브를 활용**하여 국내복귀기업을 **적극 유치하고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지원**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**

□ **(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)** 법률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**126개社**

○ 연도별

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계
15	2	10	4	8	14	23	26	24	126

○ 진출국가별

중국	베트남	미국	필리핀	인도네시아	멕시코	대만	일본	인도	미얀마	방글라데시	계
97	15	4	2	2	1	1	1	1	1	1	126

○ 기업규모별

중소	중견	대	계
97	27	2	126

○ 업종별

전자	자동차	금속	기계	주얼리	화학	신발	섬유	포장재	기타	계
31	22	16	11	11	8	7	7	5	8	126

*기타 : 시각디자인, 컨테이너, 가구, 양조, 석재, 연마재 등

○ 복귀지역별

충남	전북	경기	경북	경남	부산	인천	대구	충북	세종	광주	울산	강원	전남	계
18	18	18	17	16	10	7	5	5	3	3	3	2	1	126

